

완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착수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 개선 국비 137억원 확보 배수문 5개소 확장 재설치...농어촌 도로도 점검

완도군이 지역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대적인 국비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완도군은 농작물 생산과 직결되는 배수 및 토지 환경 개선과 농지 주변 도로까지 최근 정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지역 농가들의 영농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해마다 상승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노화읍 충도지구 83ha에 대한 침수 해소 및 토지 생산성 향상 등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비 137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완도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우기 및 자연 재난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결과물이다.

배수 개선사업은 흉수 발생 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배수문 5개소 확장 재설치 및 배수로 2.3km 확장 등

이며 201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세부설계 실시 등 행정절차 이행 후 4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 충도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통해 농경지 침수 예방으로 수확량 증가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노화읍 구석지구 86.88ha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을 88억 6,1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35개 노선, 50개소에 대해 6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 정비는 균열 및 부등 침하 등으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차도 폭협소로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선형 불량으로 시거 확보를 위한 개선 공사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반영했다.

도로의 원활한 통행 및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표지, 자선규제봉,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 보수와 주요 간선 도로 변 환경 정비, 포트홀 보수, 퇴적물 배수 시설 토사 제거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에 대해서 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안전헬스,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해남군은 최근 화산면 경도리 마을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와 농업인, 관련공무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드론, 무인보트 등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벼 생산비 절감 기술 현장교육 및 연시회를 가졌다. /해남군 제공

드론·무인보트 첨단 농기계 연시회

해남, 벼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선포

해남군은 최근 화산면 경도리 마을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와 농업인, 관련공무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드론, 무인보트 등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벼 생산비 절감기술 현장교육 및 연시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농촌연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해남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무인보트 및 드론이용 제조제 살포기술 등에 대한 현장 시연이 이뤄졌다.

해남군은 올해 11개소, 230ha 면적에 무인보트와 드론을 이용한 벼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해충 항공방제 1만 6,362ha, 벼 육묘상자 처리제 5,747ha 등을 지원해 연간 38억원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두

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무농점과 재배는 기존 이앙재배와 비교해 시비작업은 50%, 제초제 살포작업 80%, 병해충 방제 작업은 80%이상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 전체 재배 과정으로 보면 50%이상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이 경운, 수확작업을 제외한 벼 재배 전 과정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재배기술을 확립해 보급 해나고 있다.

연시회에 참석한 명현관 해남군수는 “자율주행 이앙기, 드론 등 농업용 첨단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 소통넷’ 본격 운영 전국 최초 SNS서비스 군민소통 획기적 변화

해남군이 군 단위 전국 최초로 ‘해남 소통넷’을 개발해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해남 소통넷은 해남군민 전용 앱 시스템으로 해남군과 해남군민을 하나로 이을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소통넷은 ▲해남소식·재난·재해, SNS 등 알림서비스 ▲군 업무담당자 찾기·칭찬함시다·해남사랑상품권 안내 ▲봉사활동·재능기부·교육 ▲우리마을안내, 이장알림 등 단체활동 ▲모범음식점 소개·내 가게 홍보 ▲군민건강·군민안전·민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 고장 정보를 비롯해 생활민원서비스, 각종 알림정보, 마을소식까지 실시간으로 한눈에 받아볼 수 있어 스마트기기를 통한 군민 소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읍면 이장교육과 맞춤형 순회교육 등을 통해 사용설명회를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 후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소통넷 앱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소통넷을 검색,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 소통넷 운영을 통해 사업안내, 교육, 각종 행사안내 등을 알림 서비스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며 “소통과 협력이라는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에 기여하고 민관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강진 칠량 ‘쏙잡이’ 한창 강진군은 최근 칠량 봉황마을 죽도 인근에서 ‘쏙 잡이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쏙 잡이 체험 행사기간동안 2,530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갯벌을 체험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중앙로상가 ‘문화관광거리’ 탈바꿈

내년까지 8억8천만원 투입...역사·문화·관광 연계

강진중앙로상가가 문화관광 특화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중앙로상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19년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지난 3월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2년간 총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중앙로상가를 ‘문화관광형 상가’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하여 상가 고유의 장점을 집중 육성하

는 사업이다.

강진중앙로상가는 지난해 특성화 첫걸음시장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고객신뢰, 결제편의, 위생·정결 개선, 안전·화재관리, 상인조직 강화 등 5대 혁신과제 개선 및 특성화시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다음 단계 지원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강진중앙로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디자인 캐리커 조형물 및 벽

화 조성 ▲특화상품 개발 및 상용화 ▲핵심점 육성 및 활성화 ▲상인 동아리 운영 ▲5대 핵심과제 강화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강화 ▲각각 홍보 및 이벤트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강진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및 연계해 전남의 대표 문화관광형 상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승욱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상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강진을 상권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공모사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서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만난다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상 무료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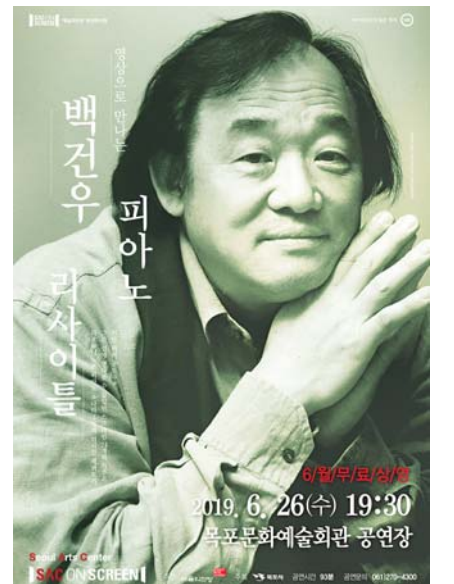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6일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7시 30분부터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영상을 대형스크린으로 무료상영한다.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오랫동안 리사이틀이나 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서 여러 작곡가의 협주곡으로 국내팬들과 만나 왔지만, 러시아 독주 레퍼토리로 한국팬과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번 공연에는 스크라빈 24개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1번이 준비됐다.

일찍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인 최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전곡과 파가니니 주제 랩소디를 협연하여 현지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고, 1997년 페르시아프와 동곡을 BMG에서 녹음했지만 국내에서 라흐마니노프의 독주곡을 볼 기회는 드물었다.

서울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창작발레 ‘심청’, 4월 연극 ‘페리클레스’, 5월 연극 ‘보물섬’ 실황공연에 상영에 이은 네번째 우수 공연작품 영상 상영이다.



‘SAC on Screen’ 이란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으로 우수 공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며 지역 문화 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공모 신청해 선정됐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청 문예시설팀리사사무소(061-270-4300)으로 하면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암 드림스타트 정리수납 부모 교육

영암군은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의 효과적인 정리수납을 주제로 야간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은 아동이 정서적, 육체

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쾌적한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생활에 실천 가능한 정리수납법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 마량면 주민자치위원회

강진군 마량면은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19일 마량면에 따르면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명영 주민자치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임자면사무소-KT 봉사활동

신안군 임자면사무소와 kt호남권사회공헌팀은 최근 보존대상자 15가구를 선정해 골목 구간에 태양광센서 등을 설치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양배 임자면장은 “kt호남권사회공

헌팀의 봉사활동을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공헌기업과 민간복지재단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